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VIII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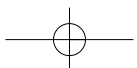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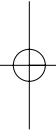
제3절 통일교육을 통한 합의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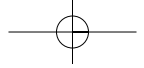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지원서비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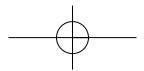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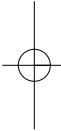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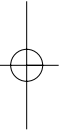
제6절 국민 만족을 위한 통일업무 혁신

2006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정책고객과의 대화, 온라인과 홍보물을 통한 정책설명과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대북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VIII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견도 보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더욱 확대되었다.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의 4대추진원칙중 하나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적 참여 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개방·확대하여 왔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다.

통일부는 2006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정책고객과의 대화, 온라인과 홍보물을 통한 정책설명과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대북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과 만남을 추진하였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고객과의 대화 추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오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열린 통일포럼」과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장·차관 및 간부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6년에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2006년 한해 동안 장·차관은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438회에 걸쳐 언론사와 학계의 남북문제 전문가 그룹은 물론 납북자 관련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 정책현안 및 정부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분야별 정책고객 관리도 강화하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비롯한 각 본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자,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인 정책고객과의 직접 대화를 총 1,786회 실시하였다.

이같은 지속적인 정책고객과의 만남과 정책설명 노력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실수요 고객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자문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추진에 참고

하였다. 사회 각 분야의 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해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06년에는 참여정부 제2기 통일고문회의를 새롭게 구성, 총3회의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건의하였다.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교육, 남북회담의 6개 분과 6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2006년 한해동안 총 24회 개최하고,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다.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2회의 정기회의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및 금강산 체험학습 통일교육 효과 조사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서비스 인지도 조사 등 총 6회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정책수립 및 업무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의 통일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 국민의 참여 활성화

정부는 2005년 8월부터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 상의 '국민참여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통일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마일리지 회원은 2006년 말 현재 총 36,984명이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 ‘정책제안’ 코너 등에 네티즌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홈페이지 방문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일리지 회원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 등에 대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매월 ‘통일e음’ 제호의 웹진을 발간하고 있다. 웹진에는 통일정책 정보를 비롯하여 통일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물 소개, 북한에 대한 자료 등을 흥미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현장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6년 7월에는 정책고객 40여명을 통일부로 초청, 정책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견학하게 하였으며, 12월에는 우수 정책제안 고객과 통일정책모니터 등 20명을 초청하여 ‘민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강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5년 이후 마일리지 회원과 자원봉사자 모임인 통일서포터즈 회원 등 130여명이 대북 수해물자 지원, 청소년 금강산체험 연수요원, 통일문화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행사 진행을 돕는 등 통일 업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2004년부터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당초 전문가 및 경협 관계자 등 100명으

로 시작했던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2006년에는 분야별 대북정책 및 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객집단 757명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일반 국민 333명 등 총 1,09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모니터링 대상과제로 연두업무 계획의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과 관련된 과제 중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0~12개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경협, 개성공단 사업,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통일교육 등의 과제에 대해 총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고객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는 업무개선 및 사업부서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3.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20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은 총 183개이다.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 국제사회, 시장, 시민사회 등이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국가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민간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민간의 정책참여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각종 국민참여형 통일행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 증가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단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주요 통일사업 추진 민간단체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협력할 부분을 모색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통일만화 그리기 대회', '통일소원 음악회', '통일문예제전' 등 각종 대중행사에 대한 상장, 표창, 후원명칭 사용 등을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공동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추진된 '6.15민족통일대축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공동 중국 현지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포럼 등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정부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한과 상설적인 대화창구를 갖고 여러 가지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및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새터민의 생활안정, 사회적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였다.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1.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

가. 통일부 홈페이지 및 부서 블로그

통일부 대표홈페이지(www.unikorea.go.kr)는 1996년 12월 개통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책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일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콘텐츠 확충과 디자인 개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unikorea.go.kr	부서블로그, 통일소식, 국민참여, 정책자료, 북한연구, 전자민원, 통일부 소개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통일정보, 자료실,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참여마당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회담소식,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회담자료실, 판문점, 도서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새소식,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개성공단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청소년통일배움터, 자료실, 참여마당

제Ⅷ장
통일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또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해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도 강화해 왔다. 현재 통일부가 운영하는 소속별 홈페이지는 북한자료센터 등 5개가 있다.

인터넷에서 일반화된 블로그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통일부 소식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 8월 정책홍보본부, 혁신재정기획본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사회문화교류본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남북출입사무소, 하나원,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부서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통일관련 정보와 블로그의 특징인 친근감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속한 검색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진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서블로그의 개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통일정책 홍보 기능 강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네티즌의 참여와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부서블로그에 게시되는 자료는 통일부 부서소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 각종 통계, 전문가의 통일칼럼, 보도자료, 통일부 행사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자료가 등록되고 있으며, 공모전, 전자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공지하고 안내하는 채널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2006년 부서 블로그에 등록된 자료는 총 1,866건이며 총방문자 119,649명으로 일일평균 자료등록 12.5건, 방문자 798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부서블로그 운영 현황(2006.8.1~12.31)

부서 블로그명	등록건수	방문자 수	블로그 주소
정책홍보본부	169	22,928	http://blog.naver.com/uni_policy
재정혁신기획본부	59	4,312	http://blog.naver.com/uniinno
남북경제협력본부	80	4,932	http://blog.naver.com/unieconomy
사회문화교류본부	136	4,692	http://blog.naver.com/unicul
개성공단사업지원단	1,106	56,631	http://blog.naver.com/unigaeseong
남북출입사무소	62	4,110	http://blog.naver.com/uni_chulip
하나원	148	20,289	http://blog.naver.com/uni_hanawon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	106	1,755	http://blog.naver.com/unioffice
합 계	1,866	119,649	

나. 정책고객서비스(PCRM)시스템 운영

정책고객서비스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인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도입한 것으로, 일종의 맞춤형 정책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200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2004년 2월에 도입한 PCRM시스템에 등록된 고객명단을 재정리함에 따라 2006년말 현재 등록고객은 총 23,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고객을 각 부서 혹은 팀의 실정에 맞게 단위업무별로 분류·관리함으로써 ‘맞춤형’ 홍보에 보다 근접토록 하였다. 이 밖에 통일문제 전문가나 대북 교류 및 지원 관련 NGO 관계자, 언론·방송인 등은 통일

부 전체 차원의 공동고객으로 별도로 범주화하여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PCRM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자료는 대북지원 및 북핵문제 등 주요 정책설명 자료를 비롯하여 통일문화페스티벌과 같은 주요행사 안내, 정기적인 뉴스레터 등 총 244건에 이른다. 또한, PCRM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와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와 「주간 북한동향」을 발송하는 등 PCRM 시스템 운영개선에 반영하였다.

2006년은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당시 정부입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PCRM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전자공청회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사이버 상에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말까지 총 18차례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통일부 홈페이지 자체 게시판에서 운영되어 오다 2006년 6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에 적극 참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시상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등을 주제로 2회의 전자공청회가 열렸고, 총 242명이 2,081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 1차 전자공청회에서도 청소년용 주제를 별도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 특히 참여마당신문고와의 게시판 통합 이후 첫 공청회인 2006년 2차 전자공청회는 참여마당신문고 공청회 기준으로 타 부처와 비교 시 의견 제시 건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5.8~2006.8기준)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에 참고할만한 수준 높은 의견들이 다수 개진되고 있으며 성숙한 토론문화와 함께 통일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2006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 기간	주제	의견 제시	총 접속수
제 1 차	2.17 ~ 3.2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남북한 청소년 교류방안	1,679건	21,040회
제 2 차	8.16 ~ 8.31	북한미사일발사에 우리 정부가 쌀 비료의 지원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의견, 북한 수해발생 후 긴급구호성 지원을 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결정에 대한 의견, 북한 수해지원의 방식과 규모에 대한 의견	402건	2,607회

2. 홍보매체의 다각화

가. 홍보자료 발간, 보급

2006년 홍보자료는 대부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작·보급하였다. 세대별 계층별 관심사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 누구나 통일부의 각종 정책 및 현황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총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그 중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자료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평화번영정책의 긍정적 성과,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그 중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인쇄광고는 통일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통일부 직원을 모델로 기용, 전국의 주요 대학신문 및 지하철 무가지에 게재되어 젊은 층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는 힘,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홍보영상물은 태극기 아래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싸이의 'We are the One' 을 배경음악으로 서울·수도권 및 전국 주요극장에 상영되어 평화를 지켜내는 국민의 저력과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2006년 주요 홍보자료 현황

자 료 명	발간(상영)내역	형 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해설자료	국문 부	브로슈어
참여정부 3년, 평화번영정책 성과	국문 부	브로슈어
지하철 무가지·대학신문 광고 - 평화를 향한 발걸음 편	지하철 무가지(3개), 대학신문 24곳	인쇄광고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자료	국문 5,000부/영문 3,000부	책자
통일홍보영상물 -태극기편	전국 20개 극장	영상자료

나. 통일부와 함께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

통일부는 통일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청소년들이 실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에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여왔다.

2004년 마린블루스, 둘리, 마시마로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웹 카툰을 제작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데 이어, 2005년에는 유명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의 캐릭터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둘이 아닌 하나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통일홍보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트라이더를 이용한 홍보를 2005년부터 시작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온라인 게임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를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간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으로 구분·진행하여, 총 220,641명이 참여하였다.

“2006년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는 “달려라 통일~누려라 행운! 아무도 달려보지 않은 통일의 길을 달리며 푸짐한 행운까지 누려라”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었으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게임 참여의 재미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통일부 로고를 활용한 홍보
 - 통일부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달려라~ 통일! 누려라~ 행운! 아무도 달려보지 않은 통일의 길을 달리며 푸짐한 행운까지 누려라” 대회 슬로건을 통한 홍보
 -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해 게임참여자가 통일의 길로 간다는 기분을 들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유도
- 통일부 로고 풍선 제작 지원
 - 카트라이더 이용자들의 카트에 통일부 로고 풍선을 달게 함으로써 통일부와 유대감 제고



“2006년 통일부와 함께 하는 카트라이더 그랑프리”에 참여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맵상에 “I♥ UNIKOREA”,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달리는거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이미지 광고를 접하고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친근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 통일부 블로그 콘텐츠 공모

“당신의 숨은 끼를 통일부에 보여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남북관계 및 통일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동영상 콘텐츠(UCC)를 2006년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하고 재미있는 통일관련 콘텐츠 확충으로 2006년 8월에 개설한 부서블로그를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공모에 참여한 작품수는 총 141건으로 크리에이티브 카피설득력, 비주얼 참신성, 광고적 임팩트, 제작기법, 열의 등을 기준으

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 시상하였다. 수상작은 통일부 부서블로그에 등재하여 공모전 참여자 및 국민들이 수상작의 작품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부서블로그를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최근 인터넷 트렌드를 반영한 공모전 시행으로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친근감과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부’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 기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와 「통일부 뉴스」(unikorea.korea.kr)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18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장·차관이 33회, 본부장 및 대변인이 161회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요 언론사 논·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2006년에 열린 제18차 및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4월, 7월), 남북경제추진위 제12차회의(6월), 제13차 및 제14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3월, 6월) 등에는 내외신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통일부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북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통일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통일부 뉴스」(unikorea.korea.kr)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뉴스」는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일만화 남남북녀’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알려왔다.

2006년에도 「통일부뉴스」를 통해 남북회담 개최 현황, 개성공단 개발 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3절 통일교육을 통한 합의기반 강화

1. 통일교육의 추진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2월, 「2007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기본방향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국민역량 강화를 위해 평화공존시대를 지향하는 평화교육 강화,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기능 강화, 통일미래를 대비하는 실천적 기본역량 제고, 수요자 지향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확대를 설정하였다.

중점추진 과제로는 남북협력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평화교육의 제도화 추진, 남북관계 진전 및 통합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통일교육 실시범위 확대의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중점추진과제에 입각하여, 8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록함으로써 2007년 한해 정부,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일관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나. 「통일교육지침서」 개편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침서」를 매년 수립,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07년도 통일

교육지침서」는 평화변영정책 기초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변화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평화교육 요소를 반영하여 통일을 위한 과제로 민주시민의식과 평화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에서는 '평화의식 함양'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남북 통합과정에 점진적으로 대비하는 실천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개인적 차원에서 통일미래상을 조망하고, 통일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남북주민간 갈등해결 및 공존능력 배양을 위해 「새터민 문제」에 대한 교육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계기별 통일교육」 단원을 추가하여 학교현장에서 6.15, 6.25, 8.15 등 계기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통일교육발전토론회 개최

정부는 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총 7회에 걸쳐 인천, 제주, 경남, 서울, 경북교육청과 2,230여명의 초·중·고 교장·교감, 통일교육교사, 장학사 및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계기를 가졌다.

아울러, 2006년 11월에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전문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 「통일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실시하였다.

2.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개설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회담이 제도화되고, 교류협력이 양적·질

적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내 핵심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리더십, 변화대처능력, 통합·조정능력을 갖춘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1기 과정은 2006년 2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29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강원도 등 5개 지자체의 국·과장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은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강의, 남북 교류현장 및 북한지역 방문, 해외사례연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생들이 현업에 복귀한 후 남북관계 관련업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절차를 배우고, 교류협력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업경험담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학습하는 등 실용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3. 초청 통일교육의 전문화·체계화 추진

2006년에는 학교교사, 공직자, 방북예정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총 25,836명이 초청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955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555명, 원격(온라인)통일교육 참가자 1,654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17,444명, 공직자 1,447명, 사회 각계 인사 2,781명 등이 이수하였다.

2006년의 주요 목표인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한반도 통일의 과

제와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비전과 공직자의 역할'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민주시민의식과 갈등해결능력 배양,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추진,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도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했다.

아울러,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강의와 더불어, 토론 및 주제발표, 현장체험 등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참여도 및 교육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도별 통일교육 이수자 (단위 : 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계
사회통일교육전문인력	1,018	1,447	1,187	955	4,607
학교통일교육전문인력	4,610	3,716	1,679	1,555	11,560
원격통일교육	-	561	956	1,654	3,171
남북교류협력관련 대상자	9,152	12,996	20,401	17,444	59,993
공직자	1,056	1,268	1,087	1,447	4,858
사회각계인사	1,251	1,046	1,110	2,781	6,188
계	17,087	21,034	26,420	25,836	90,377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9월 18일부터 3일간 '하나되어 함께여는 통일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3,50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각종 문화행사·공연과 접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인 '남북청소년대화'에서는 새터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제2회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 장면

또한 ‘청소년 통일학습장’, ‘통일갤러리’, ‘북한음식마당’ 등을 통해 북한 현실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화로 떠나는 북한 여행’, ‘북한만화영화 상영’ 등을 통해 북한청소년과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통일교육원을 직접 찾아와서 방북교육을 받는 기존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측으로 출경하는 날 당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영상교육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출입근로자 및 단기체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4. 찾아가는 통일교육 실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통일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생 통일포럼' '남북관계 현안설명회' 등 다양한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일 통일교사'는 통일부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 또는 연고기관을 방문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부 전체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연인원 181명이 1일교사로 참여하여 40,46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현장교육을 통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영상물 시청, 눈높이 강의, 놀이교육을 묶어서 실시하는 전문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총 18개교 4,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생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이 연구·발표·토론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행사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개 대학에서 총 1,9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학생들이 서로의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 사회 통일논의 활성화 및 대학생들의 통일 지향적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설명회'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 발생시 통일부 간부,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지역을 찾아가서 총 25회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국민 직접 설명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다.

5. 온라인 통일교육의 활성화

정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구축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200여명으로 2006년 말에는 방문자수 495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 대상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통일교육 장기과정(60시간, 4학점)」 직무연수를 인가받아, 기존 단기과정 직무연수와 병행하여 총 13회(단기 10회, 장기 3회) 1,654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원격통일교육 화면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 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의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청소년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였으며, 금강산체험소감문과 기념사진 공모, 통일 4행시, 팔도강산 사이버통일글짓기, 도전통일벨 등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특히 도전통일벨은 50문항의 퀴즈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흥미 제고와 함께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참가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6. 고객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정부는 국민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북한이해」와 「통일문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판 「북한이해」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분야별 변화상과 관련한 사진·도표 자료를 보충하였다.

「통일문제이해」에서는 ‘6자 회담’ 관련 주변정세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 정책 및 남북관계의 분야별 진전 상황 등을 반영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각급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도서관·통일교육 관련 민간기관 등 8,400여 곳에 배포·활용되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및 북한 관련 주요 사안을 알기 쉽게 설명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로 2006년에는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등 3종, 화보자료인 「사진으로 본 북한주민의 생활」, 통일교육 참고교재인 「의사소통적 통일교육」 등의 부교재도 발간하였으며, 남북간 인적 왕래의 유형 다양화, 방북 절차상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북한방문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 남북교류협력사업차 북한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학교통일교육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실용적인 통일교육 관련 정보제공 및 교

사간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소식」을 연 2회(6월, 12월) 발간하여 일선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통일칼럼, 통일교육 사례 등 통일교육에 유익한 콘텐츠로 꾸며진 웹 매거진(Unizine)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교원과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교육 관계자 25,000여 명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대상별로 세분화된 영상교재를 제작·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성과 및 통일비전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다큐영상물 「한반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사회통일교육용으로 제작·배포하였으며, 청소년용 영상교재인 「가자미의 눈물」의 제작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통일문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가 부족한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일교육교재 개발을 추진, 1차적으로 재미동포 2~3세대를 위한 영상교재 「준이의 통일여행」 제작을 추진하였다.

7.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 400명으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5, 중학교 11, 고등학교 4, 총 20개교)를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총 28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5명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 시상하였다.

특히,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남북관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교생과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 통일교육 이수교사, 통일교육 이벤트 참가 학생들과 통일교육 시범학교 학생 등 16,398명 등이 참여하였다.

나. 사회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시민사회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6년말 현재 민화협,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4개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공, 각종 교재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

2006년도에는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사례발표,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시민·청소년·정책개발 등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통일학교」,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청소년통일영상제」 등의 대상별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통일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대상 「열린시민강좌」, 「평화통일세미나」 등을 개최, 지역주민들의 통일의식 향

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일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9개 지역(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경남, 경북, 제주)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6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단체(3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하였다. 9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총 281회의 통일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12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위원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청 연찬교육 실시(2회), 통일대화의 광장 행사(1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자료 제공,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통일관련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학생층을 중심으로 총 325만여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전국 통일관 소재지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1.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2006년에는 두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10.9)으로 인해 한반도 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6자회담 재개가 1년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더욱 국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강화하였다.

2006년 하반기에 집중된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대책, 향후 전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그 같은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위해 미·중·일·러 등 주한 대사들을 수시로 만나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실무자들도 주요 외국공관들과 다양한 레벨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상황 관리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에 힘썼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차관보와도 수차례 정책협의를 갖고 6자회담 재개 문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이행 등에 있어 한·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2006년 4월과 7월, 두 차례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직후에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주요국에 전달하였다.

한편 그동안에는 주로 필요성 발생시 집중되었던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평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2006년 9월 19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외무성 관계자와 실무정책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중 협력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핵 실험 저지를 위해 한·중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북한의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아베정권 출범에 따른 일본의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제3차 한·일정책대화가 양국 외교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동 정책대화에서는 북핵 실험 이후 동북아 안보 전망과 한일 공조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2006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러 실무정책협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 러시아 외무성 북핵담당 보좌관 등 러시아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동 협의회에서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과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다.

2006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6자회담 재개 시점에 맞춰 한·미 실무정책협회가 워싱턴과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워싱턴에서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미 정부 각 부처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대북정책 추진 공조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미국 상하원 차기 주요 지도자들의 보좌관들과 만나 북핵 정국에서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KEI·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의 주요 한반도 문제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한편 뉴욕에서는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동 사업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견해를 청취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그레그(Donald Gregg) 아시아 소사이터티 회장 등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통일 우호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관리 사업은 2005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외 3대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한반도 전문가 등 해외 여론주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동 연구모임은 장기적으로 우호세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한 국제여론을 신속히 수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가 컸다.

먼저 해외주재 통일관이 각자의 주재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한반도 전문가연구모임」의 경우 미국 6회, 일본 4회, 중국 1회, 독일 1회 등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모임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KEI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 15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관 등을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6자회담, 북한 핵실험, 한미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경우, 여러 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한

반도 전문가로 연구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아베정권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세전망, 북한의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실험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한 외국인 전문가 연구모임」은 미국인 전문가 모임 2회, 일본인 전문가 모임 2회, 유럽인 전문가 모임 3회 등 총 7회 개최되었다.

국내 장기체류중인 미국인 전문가 모임에서는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서울 주재 일본 신문 및 방송사 지국장 등이 참여한 일본인 전문가모임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반도 정세,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등을 주제로 통일부 직원들과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유럽인 전문가 모임에서는 개성공단사업 추진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방한 전문가들을 초청, 통일부 직원들과 공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인터내셔널 포럼」은 올해 총 8회 개최되었다. 올 한해에는 미 국무부 전직 관계관,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관계, 미중관계, 미일관계, 미국의 대북 및 대아시아 정책 등을 주제로 직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

올해 통일부를 방문한 고위 외국 인사로는 번스(Nicholas Burns) 국무차관, 본드(Christopher Bond) 상원 의원, 롬니(Mitt Romney) 전 주지사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추이리루 현대국제관계 연구원장 등 중국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고위 인사들이 있었다.

3.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홍보는 「통일캐러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캐러반은 대상국가의 주요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의회·언론계·교계 및 동포사회 등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대북정책설명회’, 주요 연구기관·학계 소속의 한반도 전문가와의 학술회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국제문제전략회의’,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실시하는 의원 외교 차원의 ‘통일문제 의원워크숍’ 등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05년부터 주변 4국 및 유럽 주요국가를 대상지역으로 실시되어온 동사업이 올해에는 한반도 정세의 긴박한 변화에 따라 더욱 활성화되었다. 필요에 따라 대북정책설명회와 국제협력전략회의를 병행추진하여 양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통일캐러반」은 2006년 한 해동안 미국(4월17일~21일 워싱턴 및 11월29일~12월 6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 일본(5월30일~6월3일 히로시마·오사카 및 12월26일~28일 동경), 중국(9월18일~22일 북경·상해 및 12월8일~9일 북경), 러시아(9월23일~30 모스크바·뻬제르부르크·블라디보스톡) 및 EU 지역(5월15일~21 런던·브뤼셀·베를린) 등에서 총 8회 개최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개성공단(미국), 북한 인권(유럽) 등 지역별 관심사에 정책설명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올해 실시된 통일캐러반의 특징은 국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현지 인사들과의 보다 심도깊은 토론 및 양방향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실시된 미국지역 전략회의(4월 18일 워싱턴)에서는 워싱턴지역 한 반도 전문가들과 개성공단사업의 전략적 의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 실시된 전략회의(12월 4일 버클리대)에서는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미 서부지역의 전문가들과 폭 넓은 토론을 벌였다.

2006년 「통일캐러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국제정세의 현실에 맞춰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이 토론의 주 의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지역 전략회의(6월 2일, 교토 동지사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 지역 전략회의(9월 20일, 북경대)에서는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러시아 지역 전략회의(9월 28일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과 평가는 하반기 미국지역과 중국지역(12월8일~9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략회의에서도 주요 주제가 되었다.

한편 2006년 5월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통일정책 해외설명자료』를 발간하였다. 동 자료는 해외 주재 외교관 등이 주재국 정부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있는 공관에 배포되었다.

영문 홍보자료로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을 소개하는 『The Road to Korean Unification』 소책자 1,300부를 5월에 발간한데 이어, 12월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정리한 『Preserv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소책자 3,000부를 발간하였다. 이들 책자는 미국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의 재외 공관 및 지역 한인회를 통해 현지 전문가와 동포들에게 배포되었다.

「통일캐러반」 실시를 통해 접촉하게 된 주요 인사들에게는 PCRM을 통해 주간 영문 뉴스레터 등 관련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올 한해 PCRM 주소록에 등록된 주요 해외 인사들에게는 영문 뉴스레터가 총 24회, 영문 정책속보

가 총 11회 발송되었다.

영문 뉴스레터는 매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관계 뉴스를 소개하였고, 정책속보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긴급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지지기반 확대에 기여하였다. 영문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해외 주요인사의 수는 연초에 630여명에 머물던 것이 연중 계속 증가하여 12월말에는 이미 700명을 넘었다. PCRM 수신자 주소록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의 학계, 언론계, 정계의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영문 뉴스레터를 통한 해외홍보는 정부부처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앞서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 현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한민족공동체 의식 발전을 도모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같은 맥락에서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3일 부터 10일까지 해외동포 밀집 거주 지역의 하나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제16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브라질지역 거주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동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 동포사회는 동포사회 형성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과의 잦은 교류 및 북한 주민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대북정책 추진과 통일기반 확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곳 동포사회의 8개 신문·방송에 민족의 동질감을 살리고 남북관계 현황을 이해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에도 중국 하얼빈 흑룡강신문사의 「신춘문예」 등 8개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12건을 지원하여 북한 접경지역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지원서비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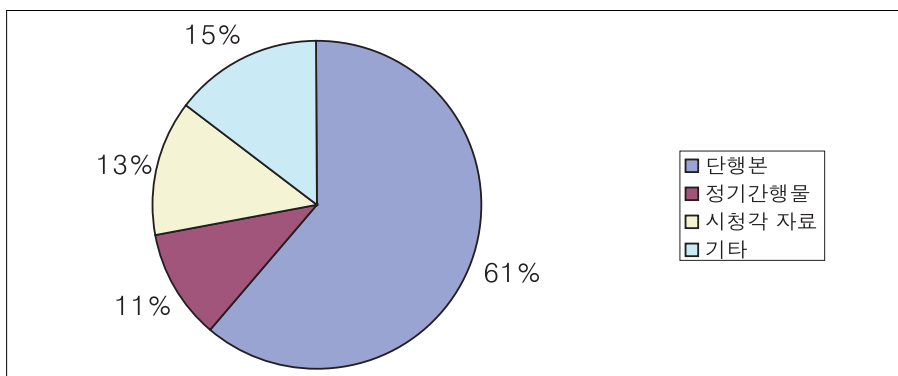
1.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화일 자료 3천여건, 시청각자료 6천 7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6천 2백여 건 등 총 9만 2천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종 류	자 료 건 수
단행본	18,284
정기간행물	3,203
시청각 자료	3,990
기타	4,406
계	29,883



조선중앙TV프로그램 편성표

조선 중앙TV 프로그램(2006. 12. 27)

시 간	방 송 순 서
	※ 본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09:13	※ 김정일, 인민군 제3993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
09:20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23)
10:10	〈서정시〉 나의 조국
10:30	〈조선기록영화〉 공화국의 평범한 공민들
11:24	〈조선예술영화〉 우리 대의원
12:47	〈녹화실황〉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요술공연중에서
13: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13:20	〈좌담회〉 세계합창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친 여학생 합창단 (〈제4차 세계합창경연 참가자들과 함께〉)
14:00	- 김정일, 인민군 제109군부대 지휘부 시찰
14:08	〈조선기록영화〉 평양국제영화축전
14:28	〈녹화실황〉 함경남도 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중에서
14:59	〈텔레비전기념무대〉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언제나 백승을 떨치리
16:11	〈화술소품축전〉 촌극 : 백두산마을 사람들
16:47	- 날을 따라 변혁하는 금야군을 찾아서(제2회)
17:00	- 보 도
17:11	- 오늘호 중앙신문개관
17:25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다람이와 고슴도치(제27부)
17:46	〈녹화실황〉 2006년 학생소년들의 지덕체 자랑이야기
18:36	-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인 한해
19:00	- 김정일, 인민군 제109군부대 지휘부 시찰
19:08	〈소개편집물〉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김일성 헌법
19:25	〈녹화실황〉 인민군 협주단 여성민요 2중창 무대
20:00	- 보 도
20:40	〈텔레비전연속극〉 한 여당원의 추억(제3부)
21:33	- 장군님 품에서 영생하는 영화인들(인민배우 전재연)
21:58	〈서사시〉 축복받은 경연무대(2)
22:13	- 김정일, 인민군 제3993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는 바, 2006년도에는 총 35회 개최에 2,734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6년 12월말까지 총 404회의 북한실상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3만 2천여명이 참가하였다. 2006년도 참가자의 대상별 분포를 보면, 대학(원)생 61%, 교사 17%, 중고생 11%, 기타 11%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북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북한영화 상영을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청주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확대하여 상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632회 상영하여 18만 2천여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총 4,677회를 상영, 86만 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고 있는 등 북한 TV시청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북한의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반입자료에 대한 심의를 주관한 이후 2006년까지 총 265회 34,453건에 대하여 심의를 시행하였다.

1999년 12월 통일부 소장 비이념성 북한자료 5천여권을 일반자료로 공개하였으며, 2003년 특수자료취급인가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04년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05년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그리고 2006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

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북한자료 이용에 획기적 발전을 기할 것이다.

2. 통일·북한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과 북한문화 체험요구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북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 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북한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는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북한정보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민들이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통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자료 센터 오픈하우스를 개최하였다.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을 지향하고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1,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여, 북한 선생님과의 이야기 한마당, 북한말 알아맞히기 퀴즈, 새터민과 함께 하는 북한 동요 및 율동 따라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통일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통일문제의 국제화 일환으로 2006년 8월 전 세계 도서관계 최대 행사인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서울대회 기간 중 북한자료센터 주관으로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ference) 방문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 20여 개국 관련인사 40여명이 참여하여 통일·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북한 정보자료 지원·관리시스템 혁신

통일부는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주파수(RFID)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체 소장자료 10만여 권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자료대출 및 반납 처리속도를 기존의 10분의 1로 단축함으로써 북한자료 이용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자료의 소장여부 및 위치 등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별도의 회원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RFID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자료이용 회원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고객 중심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를 전면 개편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 13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소장자료의 정보 및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영화 소개 코너, 북한교과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실상 이해의 장’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제6절 국민 만족을 위한 통일업무 혁신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종 행정제도·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이며 질적 변화를 추구해왔다.

통일부도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에 노력한 결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정부혁신평가에서 '변화노력이 조직 전반에 확산' 되는 '혁신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혁신추진 초기의 다양한 혁신노력은 부문별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조직전반으로 혁신을 확산하고 업무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추진방식상 일방향적, 소수 담당자 중심의 혁신이 추진됨으로써 혁신추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혁신피로감이 나타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6년은 '일과 혁신의 융합'을 기조로 삼아 통일부의 모든 업무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의 성과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혁신의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간 해라 할 수 있다.

1.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추진기반 강화

가.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혁신목표와 전략의 수립

최근 남북관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통일부의 정책고객들이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관련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통일정책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외부 환경변화와 내부역량을 분석하고 통일부 주

요 이해관계자 및 고객들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2006년 혁신목표를 ‘혁신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 증진’으로 설정하였다.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책중심」, 「정보화」, 「국민중심」, 「전문화」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선택하고 향후 2010년까지 5년간의 혁신 로드맵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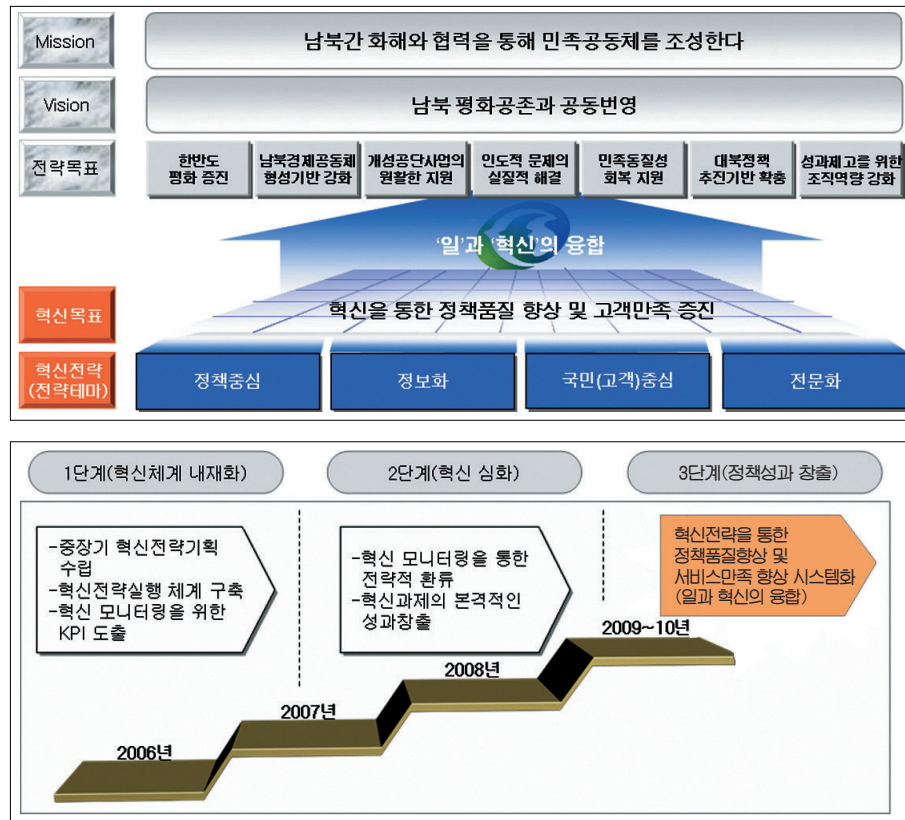
「정책중심」이란 대북정책 총괄 조정부처로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중장기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업무에 접목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문서처리와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중심」이란 큰 틀에서는 단일방향의 국민의견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과 시민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란 급변하는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 직원들의 지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립된 혁신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시급성, 중요도, 실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과제를 채택하고 2010년까지 중장기 관점에 입각하여 혁신계획을 체계화시켰다. 통일부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점차 다양화·국제화하는 통일업무와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통일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비전 미션 체계도 및 통일부 혁신 로드맵(안)

나.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혁신역량 배양

통일부가 혁신 로드맵에 따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창조적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상시학습을 제도화하는 등 학습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팀장에게는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학습 후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에게는 직급별로 ‘최소 의

무학습시간'을 부여하여 학습을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직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학습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업무와 떨어지지 않는 학습환경을 구축하였다.

부내 학습동아리의 경우 직원들이 수동적·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 2006년도에는 비자발적이고 활동이 적은 학습동아리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동아리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 법제 네트워크」, 「북한경제학습」 등 남북관계가 질적·양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학습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였다.

이 외에도 혁신리더십, 변화관리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로 차별화된 혁신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북핵실험, 독도문제 등 통일관련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통일혁신아카데미」, 「전직원 혁신 워크숍」 등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학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통일혁신아카데미 사진

2. 통일업무 혁신성과

가. 일 잘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단발성행사 위주의 혁신활동만으로는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내재화된 혁신문화를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효율적 행정, 투명한 행정, 분권화된 행정 등 참여정부의 혁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 기반의 혁신추진이 필요했다.

2006년에는 기관장 대면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온라인 보고시스템 및 문서속성카드를 활용함에 따라 보고대기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장관에게 보고되는 정책보고 문서를 대통령비서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처간 장벽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되자 주요 정책에 대한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정책결정단계까지의 정책적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팀제 및 본부제를 전면 도입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중심으로 팀장을 임명하였다. 또한 팀장의 전결비율도 기존 4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확대시켜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팀장의 업무 책임성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통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는 내부적인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들의 편의향상으로도 이어졌다. 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 관련 민원이 시스템을 통해 창구가 일원화되고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북간 동행시 동행인원·차량·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처간 공유됨에 따라 유사한 종류의 서류를 여러 부처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통일부의 정책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의 형성 노력

통일부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책개발포럼」을 운영해왔다. 이 포럼은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장관 이하 전직원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총 7차례의 포럼을 통해 31개의 제안이 발굴되었으며, ‘남북방재협력 방안’, ‘한강하구 골재 공동이용’ 등의 아이디어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모두에게 공동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안으로 남북간 합의서에 명문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해 조직차원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6년에는 실패를 은닉하기 보다 공개하여 동일한 실수의 재발을 막고 조직의 경험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패사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차관 이하 간부 전원이 참석한 동 토론회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지연 사례’ 등 각 실패사례의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청취하고 토론 후 실패사례의 우수 분석 부서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장차관 이하 전간부가 참여한 실패사례토론회('06.9)

또한, 갈수록 증대되어 가는 통일업무의 다양성, 전문성을 보완하고 내부 충원에 따른 조직의 경직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대북 에너지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 박사급 8명을 선발한데 이어 2006년도 법률 전문가, 북한학 전문가 등 총 8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다. 통일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

‘일과 혁신의 융합’ 및 ‘실사구시’ 형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혁신의 가시적 성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규모의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는 남북간 주요회담 행사시 부처간 업무 연계, 정보공유 및 운영절차 혁신을 통해 남북간 대규모 행사시 인력의 약 32%, 소요예산 43%를 절감할 수 있었다. (2005년과 2006년 장관급 회담 인력 및 소요 예산 기준)

또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남북 통행인원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개성공단·금강산을 오가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고객만족 남북출입행정서비스’를 혁신과제로 내걸고, 민원인들의 출입경 동선 분석, 불편사항 및 주기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늘어난 통행인원에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는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민원인 제출서식 6개→1개, 출입신청 접수창구 일원화)

뿐만 아니라 무선인식 기술을 이용한 RFID기반의 통합 출입·물류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출입경 절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민원인들의 제출서식을 통합하고 관련부처간 정보를 공유·통합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남측 출입경 시범실시 결과 심사 소요시간 약 50%감축, 만족도 20% 향상)

또한 북한관련 자료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청소년층의 통일 무관심 현상이 심화되므로, 북한영화를 우편으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북한자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용자수 전년대비 162% 증가)

통일교육원에서는 청소년층을 통일교육의 핵심고객으로 정하고 청소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상과 놀이를 이용한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간접교육의 틀을 벗어나 통일교육전문가가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6개교 약4,000여명 대상 시범실시)

'06년 주요 혁신성과

분 야	주요 혁신성과
남북회담행사운영	○ 인력 32%, 예산 43% 절감(장관급 회담)
남북출입절차간소화	○ 민원인 제출서식 6개 → 1개, 출입신청 접수창구 일원화 ○ RFID 기반 출입물류체계 구축
북한자료 우편서비스	○ 서울에 편중된 북한자료를 우편을 이용하여 전국에 대여 (이용자수 전년대비 162%증가)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	○ 청소년 대상 놀이를 결합시킨 통일교육실시

3. 통일업무 정보화를 통한 업무시스템 체계화 및 고객서비스 개선

2006년 정보화예산 규모는 12월에 추가된 육로통행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약 110억원으로 이는 2005년보다 423% 증가한 규모이며, 총 14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보화 추진의 청사진 없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기는 시스템간 연

동 부족이나 자료의 중복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정보화 아키텍처를 2006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구축하였다. 통일부의 정보화방향 및 추진 과제와 전략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전략적 정보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사업별로 대표적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 RFID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인원·차량·주요물자에 대해 통행·통관 심사를 자동화하여 소요시간 단축 및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한 이동 경로 통제, 물자관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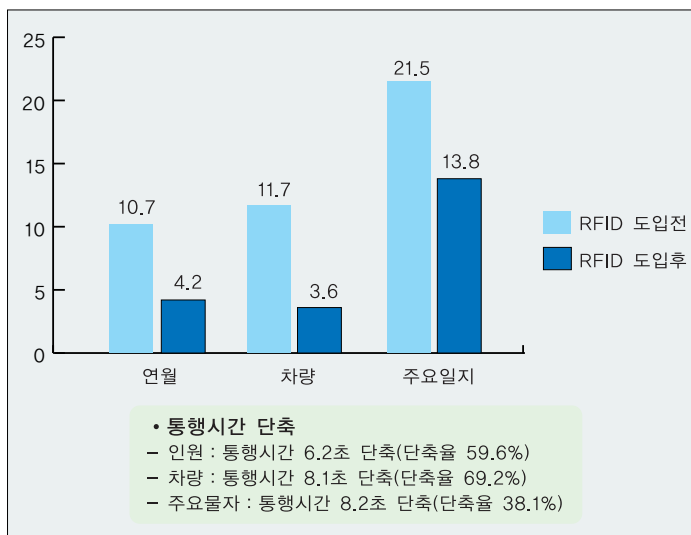
새터민 거주지 정착지원서비스망 구축사업은 새터민에 대한 기본 인적자료 및 정착지원 관리를 위한 DB 구축 및 기관 연계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 및 이산가족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민원 처리 및 공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기초자료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DB구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축적된 남북한 교류협력 및 북한정세현황, 북한사회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문서·도서·보고서(텍

통행시간 단축



스트 97,500면), 이미지(2,100면), 동영상(4,530건)의 자료를 체계화된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료분석의 기반 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략적이고 균형잡힌 성과관리 실현 및 성과 관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조직과 개인의 업무 목표를 일치시키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 및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등 업무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보화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부처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정보화에 기반한 내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정책고객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통일행정DB 구축사업 착수보고회